

# '한강의 기적'을 '양곤의 기적'으로

문 대통령, 미얀마 경협산업 방문

"우리 기업 진출 기반 확대 약속" ... 미얀마 지원 요청

기업들에 "팁코리아 만들어 미얀마 개척하자" 당부

한-미얀마 비즈포럼 참석 3대 미래 협력 방안 제시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후(현지시간) 미얀마 양곤에서 열린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기공식 및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한-미얀마, 상생과 번영의 동반자'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한-미얀마 경제 협력 산업 단지에 대한 양국 기업과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고조시키고 양국 간 상생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공식을 갖는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는 잠재력에 비해 진출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미얀마에 우리 기업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됐다.

산단은 미얀마 정부(40%)와 우리 기업인 IH(40%), 글로벌 세아(20%)의 공동 출자로 조성된다. 우리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투입해 도로·전력 등 외부 인프라 설치를 지원해 높은 토지가격, 취약한 인프라로 미얀마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또 이번 정상 방문을 계기로 설치에 합의한 '코리아 데스크'는 미얀마 정부 내 한국 기업 접점 지원 창구로서 향후 산단 입주기업 편의 지원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센터 기능과 연계해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한-미얀마 경제협력산단이 양국 정부간 협업을 통해 구체적인 결실을 맺은 모범사례라고 평가하고, 미얀마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또 과거 한국의 산업단지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듯이 향후 미얀마의 경제 성장을 이끌 전진기지로써 '한강의 기적'이 '양곤강의 기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이번 경협산업과 같이 공기업과 민간 기업들이 '팁코리아'로 협력해 개척해 나가기를 당부하면서, 정부도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중심으로 한-아세안 협력관



미얀마를 국빈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4일 미얀마 양곤 국제공항에 도착해 표민태인 양곤 주지사와의 인사하고 있다.

드(1억 달러), 글로벌·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3억 달러) 조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얀마는 2011년 민주화와 경제 개방 이후 매년 6-7%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아시아의 '마지막 미개척 시장'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국가다.

특히 풍부한 노동력과 천연자원, 중국·아세안·인도 등 총 35억명의 잠재적 소비자를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을 기반으로 향후 중국과 베트남에 이은 우리 기업의 생산 기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우리나라와의 교역 규모는 아직 크지 않지만 우리 기업들의 미얀마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중국, 싱가포르 등에 이어 미얀마 제6위의 투자국으로 120여개 봉체 업체를 포함해 에너지, 건설, 금융서비스, 소비재 등 200여개 우리 기업이 미얀마에 진출해 있다.

이번 행사에는 우리 측에서 97개사, 200여명의 경제 사절단이 참여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그룹, LG상사 등 15개 대기업을 비롯해 11개 중견기업과 56개 중소기업, 14개 기관·단체가 참여했다. 미얀마 측에서는 민웨(Myint Swe) 부통령을 비롯한 주요 부처 장관과 기업인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번 기공식과 연계해 열린 한-미얀마 비즈포럼에도 참석했다.

한-미얀마 비즈포럼은 미얀마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과 한국 기업이 가진 경험과 기술에 관심 있는 미얀마 기업들 간에 미래 협력 비전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양국간 미래 협력 방향으로 미얀마 정부의 '지속가능개발계획(MSDP)'의 3대 축이 한국 신남방정책의 '3P'(사람·평화·번영) 전략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양국 간 협력을 통한 '한-아세안 미래공동체'구상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국의 개발협력 공약을 통한 미얀마 산업발전 기반 구축 협력 ▲경협산업, 우정의 다리, 달라 신도시 개발 등 기반시설 분야 협력 및 기업 진출 지원 ▲문화콘텐츠 공동제작 및 소비재 분야 협력 등 '사람과 사람을 잇는' 경제 협력 추진 등 3개 미래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기공식과 비즈니스 포럼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 간의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IH를 포함한 국내 9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원 팀 코리아'를 구성해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인력 조달 지원에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뉴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 도의회 행자위, 국외정책연수 성료

독일·네덜란드 찾아 평화통일 등 우수사례 벤치마킹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국주영)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3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독일과 네덜란드를 찾아 한반도 평화통일 및 평생교육 우수 사례에 대한 정책연수를 펼쳤다.



행자위는 독일을 방문해 서독과 동독의 통일 과정을 가까이서 보고 배우며 남북통일의 길을 생각해보는 목적으로 베를린 자유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독일연방의회, SED독재청산재단, 독일연방정치교육원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베를린 자유대학 한국학연구소 김상국 교수는 "독일의 통일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며 통일이후에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 역시 대비해야 한다"는 교훈과 함께 통일이라는 결과만 중요시하는 우리에게 과정의 중요성을 일깨워 줬다.

이어 독일연방의회에서는 고든 의회 사무국장을 만나 연방의회 구성현황 및 역할과 기능,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해 독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SED독재청산재단을 방문해 독일의 통일 이후 사회주의 동독의 독재 청산과정에 대한 설명과 재단의 운영현황 및 사업현황 등을 청취했다.

이사장인 앤 카민스키 박사는 독일

의 독재청산과정에서 "독재자 및 독재권력에 협력한 자들에 대한 처벌 공소시효를 15년으로 정함으로써 수많은 동독의 독재세력 중 처벌을 받은 사람은 35명에 불과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4일간의 독일 일정을 마치고 방문한 네덜란드에서는 지난 10년간 네덜란드 1위 직업학교인 호르비크를 방문해 선진 평생학습정책과 방향과 운영체제와 성과 등을 청취했다.

국내에 직업교육과 훈련에 대한 욕구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분야의 직업교육 과정과 경력단절, 재교육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스템이 눈에 띄는 대목이었다.

국주영은 위원장은 "성공적인 국외 정책연수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모든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자세로 내실 있는 일정을 소화했다"며 "국외정책연수를 통해 보고 배운 것들은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 조국 청문회 6일 개최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4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여야는 조 후보자 청문회를 이달 2~3일 진행하기로 했지만 가족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무산됐다. 이에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를 찾아 의혹 해명을 위한 기자회견담회를 가졌다.

여야는 이들로 예정됐던 청문회를 6일 하루로 줄이고 논란이 됐던 조 후보자의 가족도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날짜를 6일 하루로 정한 데 대해 "청문회를 하는 것이 그래도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한다"며 "그래도 내일(5일) 하루는 준비를 해서 청문회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6일 하루 밖에 시간이 없다"고 했다.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하여 "가족 증인은 부르지 않기로 정리됐다"며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증인에 대해 법적으로(강제적으로) 지금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지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

## 민주 정읍고창지역위, 대의원대회 개최

"내년 총선 승리" 다짐

정읍시 실내체육관에서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위원장 윤준병) 대의원대회 및 당원단합대회에 송영길 국회의원, 박홍근 국회의원, 유진섭 정읍시장, 김삼기 전 정읍시장을 비롯한 1500여명의 내외빈과 당원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1부 대의원대회에서는 '대의원대회 위임의 건'과 '상임위원 선출의 건' 등 안건을 처리했다. 이어진 2부 당원단합대회에서는 벨리댄스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지역위원회 경과보고와 윤준병 위원장의 경력과 이력을 담은 영상으로 분위기를 달구었다. 이해찬 당대표, 정세균 전 국회의장, 박주민 의원, 박광온 의원, 우원식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영상축하 메시지가 차례로 이

어졌다. 윤준병 위원장은 자신의 이름이 따라 부르기 어렵다면 '윤전병'을 떠올리라며 자신 또한 "정읍고창 발전을 위한 희망원자의 윤전병이 되고싶다"며 운을 띄웠다. 이어 당원단합대회에서 당을 재건되었음을 선포하고 희망의 긴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며 "내년 4.15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정읍고창의 집권여당의 새시대를 열자!"라고 환영사를 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박홍근 의원의 송영길 의원의 각각 정읍고창과 윤준병 위원장과와의 각별한 인연을 강조하며 최고의 행정 능력과 소신을 겸비한 윤준병 위원장과 함께 정읍고창의 새로운 시대를 확산하며 동학혁명의 성지인 이 지역이 훗날 정부 탄생의 원동력이었던 정권재창출의 주역이 되어 달라고 축사를 마쳤다. /정읍=김대환 기자

# JJC 지방자치 TV

## 지역 문화 콘텐츠

지자체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본사: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리저던트 23F  
 JJC전북총국: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